

보상 노린 가짜양봉업자 기승

위례신도시 가짜 별통만 6천여통에 달해
7월 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협회·순수 양봉업자 피해 우려돼

보상을 노린 가짜 양봉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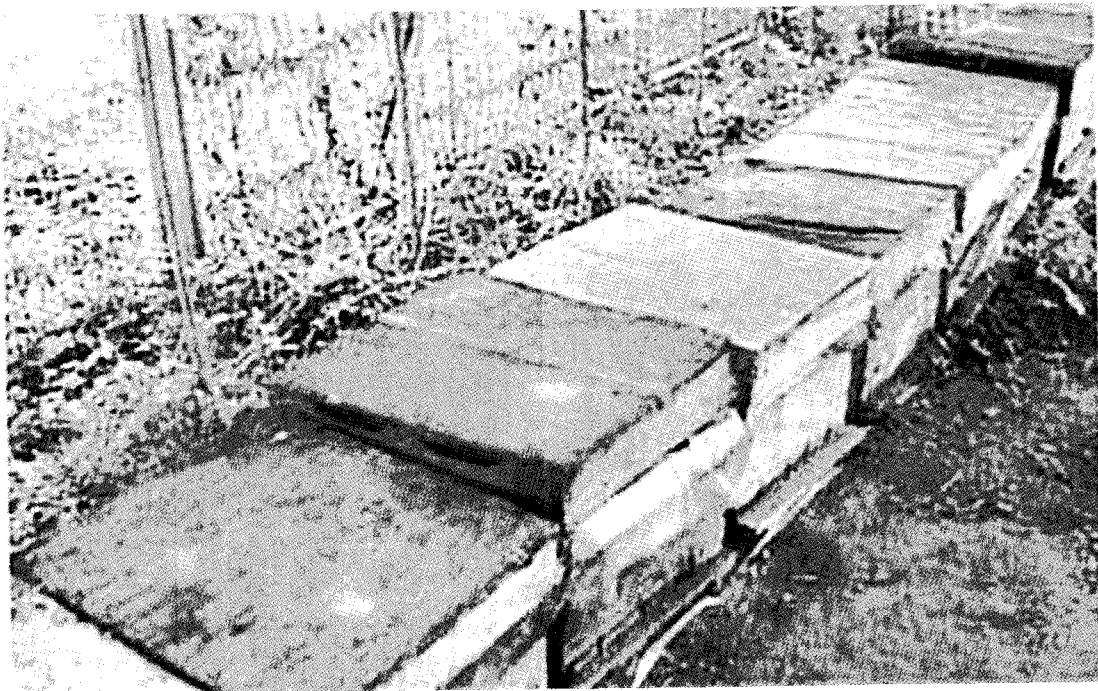
지난 7월 1일 MBC 뉴스데스크 현장출동에서는 송파와 성남 일대를 일컫는 위례신도시 예정지에 수천통의 별통이 놓여있는 현장을 취재·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 난데없는 별떼 출몰로 골칫거리를 앓아 살피보니 위례 신도시 일대에 토지 보상을 목적으로 하나둘씩 놓여진 별통이 6천여통에 이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짜 양봉업자 중심엔 이를 유도하는 별통판매 브로커가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브로커들은 돈 3천만 원을 내고 별통 20개만 설치해놓으면 양봉업자로 인정돼,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다.

또한 브로커들은 땅 주인과 공모해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갖춰 주겠다고 밝히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교육하고 있다.



관리도 잘 안되는 가짜별통 수천개가 놓여있다.

한국양봉협회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같은 지역의 회원가입 신청이 늘어나 조사해보니 이처럼 보상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발예정지나 보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일시적으로 가입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미 가입을 받은 회원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경우 가입을 반려시키는 등 나름의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협회 회원이 아닌 가짜양봉인의

별통이 도심근처에 늘어나면서 벌 분비물 및 공포감에 따른 피해 민원이 보고되는 등 협회 자체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발 빠른 가짜 양봉인들은 몇 년 후에 개발될 지역에 미리 별통을 놓고 협회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있어 협회 차원에는 순수한 양봉업자를 선별 가입 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봉**